

제147호(2017. 5. 31.)

#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1. 한·아세안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아세안 회원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 .....	7
3.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	9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마상진 연구위원	061-820-2258	msj@krei.re.kr
내용 문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아세안 FTA 이행 전기('07~'11년)에 연평균 16.4% 증가한 반면, 이행 후기('12~'16년)에는 연평균 3.8% 감소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5억 9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3.7%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이행 전기에 연평균 23.6%로 급증했고, 이행 후기에는 연평균 6.4%로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1.2% 증가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8.5%, 對아세안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1.2%로 비교적 낮은 수준
  - 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6.3%p 하락했으나, 동 기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8.6%p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對아세안 회원국별 농축산물 교역에서 일부 국가 중심의 수입·수출 의존도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
  -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등 수입규모가 작은 회원국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과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었던 수입 의존도가 완화
  -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체로 낮아짐.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 FTA 효과, 가격경쟁력 우위 등으로 증가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은 국내 수요 확대에 수입 증가
  - 당근은 관세율 인하효과(30%→0), 고추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급증
  - 밀가루는 EU산, 호주산 대비 낮은 수입단가로 인해 수입이 증가
  - 커피는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선호도 하락 등에 따른 수입선 전환으로 수입 감소
- 對아세안 가공식품 수출이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단감 등 신선과일 수출은 증가 추세
  -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라면, 조제음료, 커피조제품 등의 가공식품 수출 증가 추세
  - FTA 발효 이후 단감, 딸기, 배 수출 증가로 신선과일 수출 확대 가능성 보여줌.
- FTA 이행으로 아세안이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한 가운데 수출품목 다양화와 수출선 다변화로 對아세안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 이를 위해 신선농산물 등의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커피의 사례처럼 산업 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이행 전기 연평균 16.4% 증가, 이행 후기 지속적인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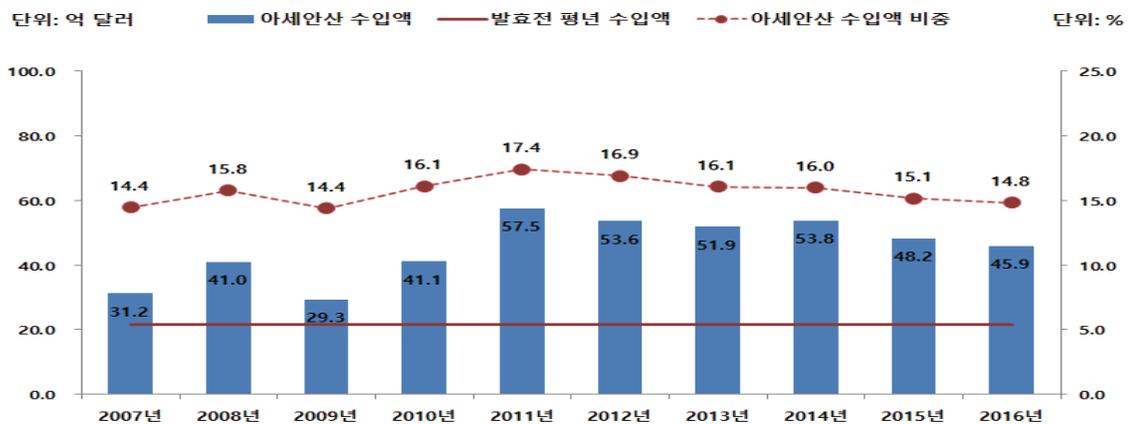
## 1. 한·아세안 농축산물 교역 동향<sup>1)</sup>

### 1.1. 아세안산 농축산물<sup>2)</sup> 수입 동향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이행 전기('07~'11년)에 연평균 16.4% 증가한 반면, 이행 후기('12~'16년)에는 연평균 3.8% 감소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5억 9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1억 5천만 달러) 대비 113.7%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천연고무 등의 수입단가 하락 및 국내 수요 감소로 수입액 감소 추세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21.5(발효 전 평년<sup>3)</sup>) → 41.0(이행 2년) → 41.1(이행 4년) → 53.6(이행 6년) → 53.8(이행 8년) → 45.9(이행 10년)
- 아세안산 농축산물이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을 기점으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
  - FTA 발효 전 평년 14.1%였던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발효 5년차(2011년) 17.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발효 10년차(2016년) 14.8%까지 하락

그림 1.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2017년 6월 1일이 발효 10주년이며, 2016년 기준 아세안은 우리나라 3대 농축산물 교역상대국(경제권)으로 부상함.
- 2) 본고에서 후술하는 '아세안산 농축산물'은 '아세안 회원국(10개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을 의미함. 분석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통계자료(3,068개 HSK코드 기준)를 집계함.
- 3) 한·아세안 FTA 발효 전 평년은 2002~2006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한·아세안 FTA 이행 후기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임산물 수입액은 이행 전기 대비 모두 증가

- 이행 후기 아세안산 수입 농축산물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가공식품 수입액은 식물성 유지류, 당류, 과자류 수입 증가로 이행 전기 대비 15.8% 증가하였으나, 천연고무류 수입이 감소하여 수입액 증가폭이 가장 작음.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팜유(37.7%), 사탕수수당(57.3%), 혼합조제식료품(36.8%), 당밀(19.4%)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천연고무(△21.4%), 야자유(△4.8%) 등임.
- 이행 후기 아세안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기타 산식물과 버섯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선 과일류 수입 증가로 이행 전기 대비 79.4%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바나나(45.1%), 기타과실(253.9%), 캐슈넛(13,963%), 가공 파인에플(27.7%)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기타산식물(△83.5%), 난초(△75.6%), 호박(△66.5%) 등임.
- 이행 후기 아세안산 곡물 수입액은 박류, 전분류, 두류 등의 수입 증가로 전기 대비 19.7%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팜너트유박(48.1%), 야자박·코프라(22.2%), 타피오카전분(60.1%)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밀기울(△6.4%), 쌀(△4.8%), 면실(△80.9%) 등임.
- 이행 후기 아세안산 축산물 수입액은 원피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금육류, 모·수모류, 가죽류, 동물성 유지 수입 증가로 이행 전기 대비 115.2%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닭고기(133.9%), 기타 양모(312.8%), 기타 동물성유지(20,134%), 가죽(61.8%)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소원피(△56.5%), 젤라틴(△56.8%), 유장(△41.7%) 등임.

표 1. 아세안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이후		증감률(%)	
		전기(‘07~‘11) (B)	후기(‘12~‘16)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합계	2,149	4,001	5,065	135.8	26.6
농산물	1,181	2,809	3,489	195.5	24.2
- 곡물	146	347	415	183.8	19.7
- 과일·채소	195	351	629	222.4	79.4
- 가공식품	839	2,112	2,445	191.3	15.8
축산물	39	50	107	176.1	115.2
임산물	929	1,142	1,469	58.2	28.6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2~2006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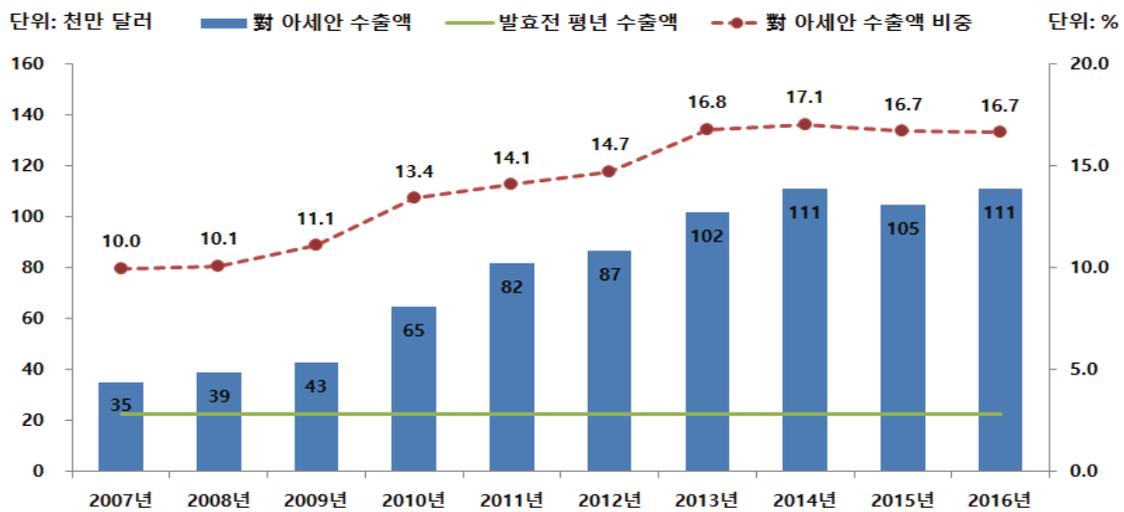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이행 전기 연평균 23.6% 증가, 이행 후기 증가 추세 둔화

## 1.2.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 동향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이행 전기에 연평균 23.6%로 급증했고, 이행 후기에는 연평균 6.4%로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2억 3천만 달러) 대비 381.2% 증가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천만 달러): 23.1(발효 전 평년) → 38.9(이행 2년) → 64.8(이행 4년) → 86.8(이행 6년) → 111.2(이행 8년) → 111.2(이행 10년)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對아세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약 17% 수준에서 정체됨.
  - FTA 발효 전 평년 7.8%였던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은 발효 8년차(2014년)에는 17.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발효 10년차(2016년)에는 16.7%까지 하락

그림 2.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 살펴보면, FTA 이행 후기 對아세안 가공식품, 과일·채소, 축산물, 임산물 수출액은 이행 전기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이행 후기 對아세안 수출 농축산물 중 그 비중이 가장 큰 가공식품 수출액은 연초류, 음료류, 커피류, 면류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전기 대비 93.2%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껌(275%), 조제음료(1,225%), 커피조제품(66.6%), 과당(276%)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자당(△22.2%), 에틸알코올(△68.0%), 곡류조제품(△23.1%) 등임.
- 이행 후기 對아세안 과일·채소 수출액은 신선 과일류, 버섯류, 화훼류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전기 대비 87.0%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딸기(122%), 팡이버섯(94.6%), 배(142%), 감(36.5%), 김치(159%)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가공 오렌지(△95.5%), 기타산식물(△99.6%), 가공 배(△98.0%) 등임.
- 이행 후기 對아세안 곡물 수출액은 박류, 전분 등의 수출 증가로 전기 대비 59.4%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전분(4), 대두박(50.1%), 밀(84.2%), 옥수수전분(13.5%)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옥수수박(△26.3%), 비그나·파세러스콩(△57.5%), 고구마(△71.3%) 등임.
- 이행 후기 對아세안 축산물 수출액은 원피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금육류, 가축류, 낙농품 수출 증가로 이행 전기 대비 71.6%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닭고기(111%), 가축(147%), 조제분유(25.2%)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돼지고기(△67.8%), 기타 동물성유지분획물(△67.5%), 축산 유아용조제식료품(△82.6%) 등임.

표 2. 對아세안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이후		증감률(%)	
		전기(’07~’11) (B)	후기(’12~’16) (C)	발효 전 평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합계	231	527	1,031	346.5	95.8
농산물	173	422	803	364.6	90.4
- 곡물	11	29	46	310.4	59.4
- 과일·채소	11	32	60	453.2	87.0
- 가공식품	151	361	697	362.3	93.2
축산물	40	55	94	132.7	71.6
임산물	18	50	134	657.1	166.8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출액은 2002~2006년의 수출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 전분박은 한·아세안 FTA 이행 후기(’12~’16년)에 617만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행 전기에는 수출실적이 부재하여 증감률을 표시하지 않음.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8.5%, 對아세안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1.2%

### 1.3. 한·아세안 FTA 농축산물 특혜관세 활용률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sup>5)</sup>은 68.5%로 전년 대비 6.3%p 하락

○ 2016년 기준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41.6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28.5억 달러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4.8('15) → 68.5('16)
- 한·아세안 FTA 협상 결과, 이행 10년차인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625개)이 많아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이 2015년 27.8억 달러에서 2016년 41.6억 달러로 대폭 증가함. 그러나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활용률 저하로 이어짐.
- 수입 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80% 이상인 품목은 기타과실(96.0%), 사탕수수당(97.8%), 팜유(96.7%), 커피(87.3%), 감자(100.0%), 야자유(91.3%), 당근(97.4%), 밀가루(100.0%) 등임.

□ 2016년 對아세안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1.2%로 전년 대비 8.6%p 상승

○ 2016년 기준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11.1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4.6억 달러임.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32.6('15) → 41.2('16)
- 라면(36.8%p), 녹차(30.5%p), 소주(24.7%p), 전분박(20.1%p), 대두박(15.3%p) 등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대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을 견인함.
- 수출 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기타사료용조제품(71.6%), 전분박(81.0%), 녹차(81.7%), 느타리버섯(84.5%), 대두박(99.0%), 소주(83.0%), 라면(57.4%), 옥수수전분(61.2%) 등임.

5)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FTA 이행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 중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품목의 수입액 비중임.



그림 3. 2016년 아세안산 주요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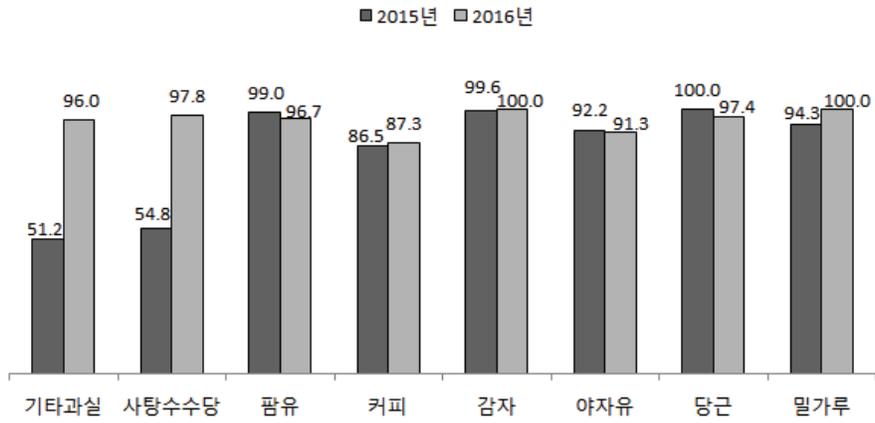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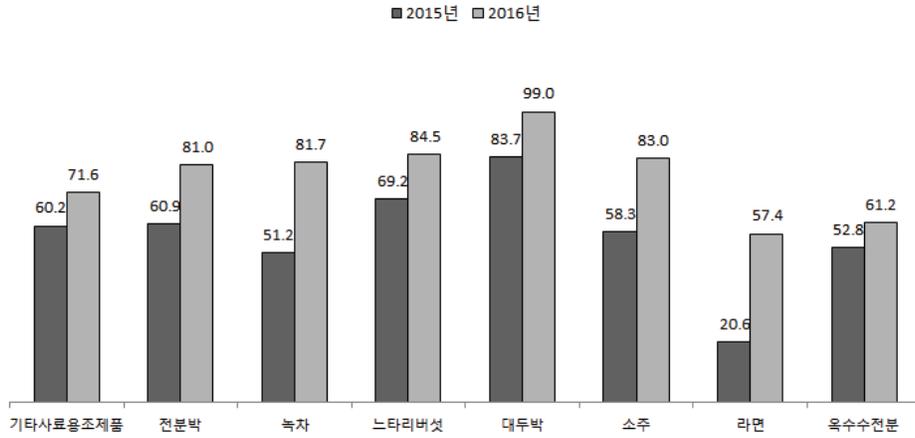


그림 4. 2016년 對아세안 주요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일부 회원국 중심의 수입의존도 완화

## 2. 아세안 회원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

### 2.1. 국가별 농축산물 수입 동향

□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등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원국들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일부 국가(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심의 수입 의존도 완화

-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규모가 FTA 발효 전후 아세안 회원국 중 1위와 2위를 유지한 가운데 베트남산 수입이 증가하여 그 수입액 규모가 발효 전 5위에서 이행 후기 3위로 상승
  - 전체 아세안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5.5%에서 이행 후기 16.5%까지 상승(11.0%p 상승)
  - 반면, 동 기간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시아산 비중은 각각 8.6%p와 6.2%p 하락
  - 그 외에 수입액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주요 수입대상국이 상위 5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수입선 다변화로 집중도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

표 3. FTA 발효 전후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과 집중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발효 이후				증감률(%)	
	수입액 (A)	비중	전기('07~'11)		후기('12~'16)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수입액 (B)	비중	수입액 (C)	비중		
인도네시아	790	36.4	1,169	29.2	1,407	27.8	78.1	20.3
태국	492	22.7	1,055	26.4	1,185	23.4	140.7	12.3
베트남	120	5.5	370	9.2	838	16.5	598.3	126.5
말레이시아	490	22.6	853	21.3	833	16.4	69.9	-2.3
필리핀	222	10.2	432	10.8	570	11.2	157.2	31.9
싱가포르	38	1.8	83	2.1	141	2.8	268.0	70.0
미얀마	19	0.9	27	0.7	67	1.3	255.4	143.3
캄보디아	1.5	0.1	9	0.2	17	0.3	1,029.0	84.4
라오스	0.3	0.01	2	0.1	8	0.2	2,578.3	267.2
브루나이	-	-	0.88	0.02	0.94	0.02	-	6.9
CR2	-	59.0	-	55.6	-	51.2	-	-
CR3	-	81.6	-	76.9	-	67.7	-	-
CR5	-	97.3	-	96.9	-	95.4	-	-

주: CR2, CR3, CR5는 집중도지수로 각각 상위 2개, 3개, 5개국의 비중의 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FTA 발효 이후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짐

## 2.2.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 동향

□ FTA 발효 이후 특정 회원국(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체로 낮아짐.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규모가 FTA 발효 전 아세안 회원국 중 4위였으나, 발효 이후 수출이 급증하여 1위로 상승
  - 전체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13.5%에서 이행 후기 34.4%까지 상승(20.9%p 상승)
  - 반면, 동 기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9.7%p, 7.5%p, 11.9%p 하락
  - 동 기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수출액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절대 수출액은 상당히 작은 수준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 편으로 다른 회원국들의 수출액 비중은 대체로 하락하여 수출선 집중도가 완화되는 특징을 보임.

표 4. FTA 발효 전후 對아세안 회원국 수출액 비중과 집중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발효 이후				증감률(%)	
	수출액 (A)	비중	전기('07~'11)		후기('12~'16)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수출액 (B)	비중	수출액 (C)	비중		
베트남	31	13.5	128	24.4	355	34.4	1,044.1	176.0
인도네시아	58	25.2	100	19.1	160	15.5	176.0	59.2
필리핀	46	20.2	73	13.8	131	12.7	181.7	80.1
싱가포르	25	10.8	61	11.6	107	10.4	332.5	75.9
태국	49	21.3	93	17.7	97	9.4	97.9	4.0
말레이시아	18	7.7	50	9.6	87	8.4	391.4	72.8
캄보디아	1.1	0.5	12	2.4	64	6.2	5,544.4	412.2
미얀마	1.7	0.7	7.7	1.5	29	2.8	1,620.4	278.4
라오스	0.03	0.01	0.6	0.1	1.5	0.14	4,871.9	157.2
브루나이	0.1	0.05	0.1	0.03	0.9	0.08	637.0	538.9
CR2	-	46.5	-	43.4	-	49.9	-	-
CR3	-	66.7	-	61.1	-	62.6	-	-
CR5	-	91.0	-	86.5	-	82.4	-	-

주: CR2, CR3, CR5는 집중도지수로 각각 상위 2개, 3개, 5개국의 비중의 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FTA 발효 전 평년 아세안산 닭고기 수입량 비중은 17.9%였으나, 발효 이후 수입은 미미한 수준

## 3.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

### 3.1.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 2004년 동남아시아 AI 발생으로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태국산 닭고기(가공품 제외) 등은 국내 반입 금지

- FTA 발효 전 평년 기준 태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약 1만 2천 톤으로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17.9%를 차지하였으나, FTA 이행 전·후기 아세안산 닭고기 수입은 미미한 수준
  - 이에 주요 수입선이 EU, 미국, 브라질 순으로 옮겨갔으며, 2016년 기준 전체 닭고기 수입량 중 브라질산, EU산, 미국산의 비중은 각각 86.1%, 7.6%, 6.3%임.
  - 최근 미국 AI 재발생, 브라질산 닭고기 안전성 문제 대두 및 태국산 수입 금지조치 해제 등으로 아세안산 닭고기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
- 실제로 2016년 12월 19일부터 태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2017년 1~4월 태국산 닭고기 404톤 수입
  - 단, 2017년 1~4월 수입된 태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kg당 2.77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표 5. 아세안산 닭고기의 수입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아세안	수입가격(원/kg)	2,134	2,473	4,274	100.3	72.8
	수입단가(달러/kg)	1.54	1.64	3.11	101.9	89.6
	수입량(톤)	11,580	22	12	-99.9	-47.7
	점유율(%)	17.9	0.0	0.0	-	-
전체	수입량(톤)	64,653	74,443	111,901	73.1	50.3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닭고기 14개 세번(0207111000, 0207119000, 0207121000, 0207129000, 0207131010, 0207131020, 0207131030, 0207131090, 0207132090,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90)임.

2) 협정관세율은 냉동 닭다리 HS코드(0207141010)의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닭고기 수입량 중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91.7%임.

3)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를(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한·아세안 FTA에서 닭고기는 양허 제외됨.

5) 점유율은 한국의 품목별 전체 수입량 중 아세안산이 차지하는 비중임.

6) FTA 이행 전기 수입단가와 수입량은 2009년 베트남산 수입 기준이고, 이행 후기 수입단가와 수입량은 2015년 필리핀산 수입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아세안산 주요 열대과일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FTA 효과와 무관하게 크게 증가

### □ FTA 발효 이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주요 열대과일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 제외되었음에도 이행 후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44.5%와 66.4% 증가
  - 동 기간 망고 수입량은 919.7% 증가하였으나, 양허 대상품목임에도 2016년에 처음으로 기준관세율(30%)이 24%로 인하되어 FTA 효과가 수입 증가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FTA 이행 후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수입가격은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89.9%, 48.7%, 47.5% 상승한 가운데 수입 증가

표 6. 아세안산 주요 열대과일의 수입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바나나	수입가격(원/kg)	631	898	1,199	89.9	33.5
	수입단가(달러/kg)	0.43	0.62	0.83	94.1	33.5
	수입량(톤)	228,243	301,292	329,719	44.5	9.4
	점유율(%)	100.0	99.5	93.2	-	-
파인 애플	수입가격(원/kg)	809	1,024	1,203	48.7	17.4
	수입단가(달러/kg)	0.58	0.71	0.82	42.2	15.0
	수입량(톤)	42,870	65,388	71,352	66.4	9.1
	점유율(%)	99.8	98.4	96.4	-	-
망고	수입가격(원/kg)	3,696	5,427	5,451	47.5	0.4
	수입단가(달러/kg)	2.59	3.77	3.81	47.4	1.0
	수입량(톤)	772	973	7,873	919.7	708.9
	점유율(%)	93.9	66.4	88.7	-	-
합계	수입량(톤)	271,885	344,934	373,361	37.3	8.2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 바나나(0803900000), 신선 파인애플(0804300000), 신선 망고(0804502000)임.

2)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한-아세안 FTA에서 바나나, 파인애플은 양허 제외, 망고는 2016년 이후 관세율이 인하(30%→24)됨.

3) 점유율은 한국의 품목별 화세계 수입량 중 아세안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이행 10년차 아세안산 망고의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4.6% 하락한 것으로 추정
  - 2016년 망고 수입단가는 kg당 3.80달러로 전년 대비 3.8% 상승하였음에도, 수입가격은 관세율 인하효과로 FTA 미발효 시 대비 kg당 265원 절감된 5,475원으로 추정됨.

## 아세안산 당근은 관세율 인하효과, 고추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급증

표 7. 아세안산 망고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입가격		하락률	관세율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망고	5,740		5,475	-4.6

단위: 원/kg,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인 망고의 HS코드는 0804502000임.  
 2)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를(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망고는 민감품목군(SL: Sensitive List)으로 2016년 기준관세율(30%)이 20% 인하됨.  
 4) 2016년 아세안산 망고는 태국(57.7%), 필리핀(38.5%), 베트남(3.8%) 등에서 수입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 FTA 발효 이후 당근은 관세율 인하효과, 고추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급증

- FTA 발효 전 당근 수입실적은 없으며, 기준관세율(30%)이 철폐된 2010년부터 베트남산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됨.
  - 2014~2016년 베트남산 당근 평균 수입량은 4,953톤이고, 동 기간 평균 수입단가는 0.48 달러로 중국산(0.45달러)에 비해 높지만 관세율 인하효과를 감안하면 약 17% 저렴함.
- 이행 후기 아세안산 고추 수입량은 국내 '베트남산 매운 고추' 수요 증가로 발효 전 평년 대비 416.0% 증가
  - 아세안산 냉동고추는 양허 제외품목(기준관세율: 27%)이고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중국산보다 수입단가가 높음에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6년 기준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단가는 kg당 0.71달러이고 베트남산은 0.73달러임.

표 8. 아세안산 주요 채소의 수입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당근	수입가격(원/kg)	-	445	569	-	28.0
	수입단가(달러/kg)	-	0.40	0.51	-	30.0
	수입량(톤)	-	57	2,987	-	5105.6
	점유율(%)	-	0.1	3.1	-	-
고추	수입가격(원/kg)	604	854	1,049	73.7	22.9
	수입단가(달러/kg)	0.45	0.62	0.75	65.8	21.1
	수입량(톤)	2,091	7,427	10,791	416.0	45.3
	점유율(%)	2.8	5.0	5.9	-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 HS코드는 신선·냉장 당근(0706101000), 냉동 고추(0710807000)임.  
 2)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를(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입량 중 아세안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아세안산 커피 수입은 국내 소비자 선호도 하락으로 감소, 밀가루 수입은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증가

- 이행 10년차 아세안산 당근의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23.1% 하락한 것으로 추정
  - 2016년 당근의 수입단가는 kg당 0.50달러로 전년 대비 11.1% 상승하였음에도, 수입가격은 관세 인하효과로 FTA 미발효 시 대비 kg당 174원 절감된 580원으로 추정됨.

표 9. 아세안산 당근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입가격		하락률	관세율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당근	754.2		580.2	-23.1

단위: 원/kg,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인 당근의 HS코드는 0706101000임.  
 2)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를(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당근은 일반품목군(NT: Normal Track)으로 발효 후 4년 차인 2010년 관세율이 철폐됨.  
 4) 2016년 아세안산 당근은 전량 베트남산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 FTA 발효 이후 커피 수입은 감소세를 보였고, 밀가루, 팜유와 야자유 수입은 증가

- 아세안산(베트남산) 커피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 및 국내 소비자 선호도 하락으로 수입선이 브라질, 콜롬비아 등으로 전환되어 크게 감소
  - FTA 이행 후기 베트남산 볶지 않은(원두) 커피 수입단가는 kg당 2.16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92.4% 상승
  - 단, 2016년 기준 베트남산 원두커피 수입단가는 kg당 1.78달러로 브라질산(2.27달러)과 콜롬비아산(3.28달러)보다 훨씬 저렴함.
  - FTA 발효 전 평년 전체 원두커피 수입량 중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에 달했으나, 발효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행 후기 28.5%까지 하락
- FTA 발효 이후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아세안산 밀가루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크게 상승
  - 2016년 기준 아세안산 밀가루 수입단가는 kg당 0.48달러로 EU산(0.88달러)과 호주산(0.77달러)에 비해 훨씬 저렴함.
  - FTA 발효 전 평년 전체 밀가루 수입량 중 아세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으나, 이행 후기 56.1%까지 상승
- FTA 발효 이후 국내 수요 증가로 아세안산 팜유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야자유 수입량은 이행 전기 크게 증가했다가 이행 후기 다시 감소

- 아세안산 팜유와 야자유가 전체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므로 아세안산 수입량 변화는 곧 국내 수요 변화를 반영함.
- 2016년 기준 팜유 주요 수출국은 말레이시아(55.2%)와 인도네시아(44.6%)이며, 야자유 주요 수출국은 인도네시아(89.6%)와 말레이시아(5.4%)임.

표 10. 아세안산 주요 가공식품의 수입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커피	수입가격(원/kg)	840	2,091	2,404	186.1	14.9
	수입단가(달러/kg)	0.74	1.88	2.16	192.4	15.4
	수입량(톤)	43,906	41,408	34,276	-21.9	-17.2
	점유율(%)	54.6	41.5	28.5	-	-
밀가루	수입가격(원/kg)	564	581	611	8.4	5.1
	수입단가(달러/kg)	0.50	0.51	0.55	10.7	8.5
	수입량(톤)	227	10,312	15,207	6611.6	47.5
	점유율(%)	1.5	15.0	56.1	-	-
팜유	수입가격(원/kg)	493	1,016	875	77.5	-13.9
	수입단가(달러/kg)	0.45	0.92	0.79	73.8	-14.0
	수입량(천 톤)	224	245	406	80.6	65.5
	점유율(%)	99.6	99.6	99.8	-	-
야자유	수입가격(원/kg)	634	1,303	1,445	127.8	10.9
	수입단가(달러/kg)	0.59	1.18	1.30	120.9	10.0
	수입량(톤)	50,576	59,569	52,601	4.0	-11.7
	점유율(%)	99.4	99.9	99.7	-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 HS코드는 복지 않은 커피(090110000), 밀가루(1101001000), 팜유(1511902000, 1511909000, 1511901000, 1516202020, 1511100000), 야자유(1513110000, 1513191000, 1513199000, 1516202010)임.  
 2)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를(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입량 중 아세안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이행 10년차 아세안산 가공식품의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평균 2.7% 하락한 것으로 추정
  - 커피, 밀가루, 팜유와 야자유의 기준관세율은 2~3%로 매우 낮아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

표 11. 아세안산 주요 가공식품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입가격		하락률		관세율	
	FTA 미발효	FTA 발효	품목별	평균	기준세율	협정세율
커피	2,392	2,345	-2.0	-2.7	2.0	0.0
밀가루	591	568	-4.0		3.0	0.0
팜유	758	743	-2.0		2.0	0.0
야자유	1,961	1,904	-2.9		3.0	0.0

주: 수입가격(원/kg)은 수입액 합계를(환율, 관세율 적용)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단감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15.1% 증가, 對말레이시아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23.1%

### 3.2.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단감) FTA 이행 후기 단감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5.1% 증가
  - FTA 이행 후기 단감 수출단가가 이행 전기 대비 19.2% 상승했으나, 동 기간 FTA 효과 등으로 국가별 수출가격은 대체로 하락

표 12. 아세안산 단감의 수출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수출량(톤)	3,566	7,146	7,993	124.1	11.9
아세안	수출단가(원/kg)	1,279	1,250	1,489	16.5	19.2
	수출량(톤)	2,871	5,613	6,175	115.1	10.0
	점유율(%)	80.5	78.5	77.3	-	-
말레이시아	수출가격(원/kg)	1,490	1,215	1,383	-7.2	13.9
필리핀		1,685	1,988	1,776	5.4	-10.7
태국		2,067	1,790	1,718	-16.9	-4.0
싱가포르		1,845	1,638	1,520	-17.6	-7.2
베트남		1,299	1,847	1,812	39.5	-1.9

- 주 1) 수출가격 분석대상인 단감의 HS코드는 0810902000, 0810701000임.  
 2) 수출단가(원/kg)는 한국의 對아세안 FOB가격임.  
 3)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對아세안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상위 5개국 수출량이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2%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2016년 기준 단감의 對아세안 수출량의 47.3%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30%의 기준관세율이 2010년 철폐되어 23.1%의 수출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2016년 환율과 관세율을 고려한 對말레이시아 수출가격은 kg당 1,292원임.

표 13. 對아세안 단감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출가격		하락률	관세율		양허내용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말레이시아	1,679	1,292	-23.1	30.0	0.0	4년철폐
필리핀	1,794	1,631	-9.1	10.0		4년철폐
태국	2,271	1,622	-28.6	40.0		4년철폐
싱가포르	1,916	1,321	-31.0	45.0		10년철폐
베트남	2,353	1,680	-28.6	40.0		10년철폐

- 주: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말기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FTA 발효 이후 급증, 對싱가포르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31.0%

- (말기) FTA 이행 후기 말기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상대국 수요 증가와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이후 급증
  - FTA 이행 후기 말기 수출단가가 이행 전기 대비 20.1% 상승했으나, 동 기간 對싱가포르 수출가격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1.1% 상승에 그침.

표 14. 對아세안 말기의 수출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수출량(톤)	288	1,777	2,972	933.9	67.3
아세안	수출단가(원/kg)	7,465	8,886	10,674	43.0	20.1
	수출량(톤)	20	974	1,688	8477.3	73.3
	점유율(%)	6.8	54.8	56.8	-	-
싱가포르	수출가격(원/kg)	11,398	10,962	11,081	-2.8	1.1
태국		-	10,576	11,710	-	10.7
말레이시아		5,956	8,403	9,912	66.4	18.0
베트남		-	8,382	13,662	-	63.0
인도네시아		8,871	11,169	13,348	50.5	19.5

주 1) 수출가격 분석대상인 말기의 HS코드는 0810100000임.  
 2) 수출단가(원/kg)는 한국의 對아세안 FOB가격임.  
 3)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對아세안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상위 5개국 수출량이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2016년 기준 말기의 對아세안 수출량의 55.3%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45%의 기준관세율이 2016년 철폐되어 31.0%의 수출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2016년 환율과 관세율을 고려한 對싱가포르 수출가격은 kg당 10,669원임.

표 15. 對아세안 말기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출가격		하락률	관세율		양허내용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단위: 원/kg, %					
싱가포르	15,471	10,669	-31.0	45.0	0.0	10년철폐
태국	14,820	10,586	-28.6	40.0		4년철폐
말레이시아	10,832	10,316	-4.8	5.0		3년철폐
베트남	15,766	13,709	-13.0	15.0		10년철폐
인도네시아	14,685	13,986	-4.8	5.0		3년철폐

주: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배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0.6% 증가, 對베트남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20.0%

- (배) FTA 이행 후기 배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상대국 수요 증가와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70.6% 증가
  - 배의 對세계 수출량은 이행 전기 대비 4.4% 감소한 반면, 동 기간 對아세안 수출량은 오히려 51.6% 증가
  - FTA 이행 후기 배 수출단가가 이행 전기 대비 63.8% 상승했으나, 동 기간 對베트남 수출가격은 2012년 이후 협정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어 1.8% 상승에 그침.

표 16. 對아세안 배의 수출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수출량(톤)	16,880	22,374	21,399	26.8	-4.4
아세안	수출단가(원/kg)	1,580	1,628	2,666	68.8	63.8
	수출량(톤)	991	1,116	1,691	70.6	51.6
	점유율(%)	5.9	5.0	7.9	-	-
베트남	수출가격(원/kg)	1,547	2,164	2,202	42.3	1.8
인도네시아		1,698	2,228	3,700	117.9	66.1
싱가포르		2,225	1,578	2,372	6.6	50.3
태국		2,705	2,333	3,229	19.4	38.4
말레이시아		1,155	1,181	2,003	73.4	69.6

- 주 1) 수출가격 분석대상인 배의 HS코드는 0808201000, 0808300000임.  
 2) 수출단가(원/kg)는 한국의 對아세안 FOB가격임.  
 3)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對아세안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상위 5개국 수출량이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4%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2016년 기준 對아세안 수출량의 59.5%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경우, 25%의 기준관세율이 2016년 철폐되어 20.0%의 수출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2016년 환율과 관세율을 고려한 對베트남 수출가격은 kg당 2,409원임.

표 17. 對아세안 배의 관세율 인하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출가격		하락률	관세율		양허내용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베트남	3,012	2,409	-20.0	25.0	0.0	10년철폐
인도네시아	3,297	3,140	-4.8	5.0		3년철폐
싱가포르	3,034	2,092	-31.0	45.0		10년철폐
태국	4,224	3,250	-23.1	30.0		4년철폐
말레이시아	2,109	2,009	-4.8	5.0		3년철폐

- 주: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라면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11.1% 증가, 對베트남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7.4%

- (라면) FTA 이행 후기 라면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상대국 수요 증가와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211.1% 증가
  - 라면의 對세계 수출량은 이행 전기 대비 51.8% 증가한 가운데, 동 기간 對아세안 수출량은 119.8%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 FTA 이행 후기 라면 수출단가가 이행 전기 대비 18.1% 상승한 상황에서 對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수출가격은 FTA 효과 등으로 인하

표 18. 對아세안 라면의 수출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수출량(톤)	52,581	36,817	55,873	6.3	51.8
아세안	수출단가(원/kg)	3,879	4,096	4,836	24.7	18.1
	수출량(톤)	2,645	3,745	8,230	211.1	119.8
	점유율(%)	5.0	10.2	14.7	-	-
말레이시아	수출가격(원/kg)	4,661	3,750	4,255	-8.7	13.4
인도네시아		4,539	4,364	4,285	-5.6	-1.8
필리핀		3,977	4,658	5,898	48.3	26.6
베트남		4,560	5,425	5,370	17.8	-1.0
싱가포르		2,651	3,376	4,044	52.5	19.8
태국		6,735	4,355	3,806	-43.5	-12.6

주 1) 수출가격 분석대상인 라면의 HS코드는 1902301010임.  
 2) 수출단가(원/kg)는 한국의 對아세안 FOB가격임.  
 3)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對아세안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상위 6개국 수출량이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4%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FTA 이행 전기 대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482.7%)을 보인 베트남의 경우, 8%의 기준관세율이 2016년 철폐되어 7.4%의 수출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2016년 환율과 관세율을 고려한 對베트남 수출가격은 kg당 3,801원임.

표 19. 對아세안 라면의 관세율 인하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출가격		하락률	관세율		양허내용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말레이시아	4,282	3,965	-7.4	8.0	0.0	4년철폐
인도네시아	4,744	4,518	-4.8	5.0		3년철폐
필리핀	4,841	4,210	-13.0	15.0		4년철폐
베트남	4,105	3,801	-7.4	8.0		10년철폐
싱가포르	4,622	4,279	-7.4	8.0		5년철폐
태국	5,440	4,184	-23.1	30.0		4년철폐

주: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조제음료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FTA 발효 이후 급증, 對캄보디아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9.1%

○ (조제음료) FTA 이행 후기 조제음료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상대국 수요 증가와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이후 급증

- 對아세안 수출량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발효 전 평년의 3.7%에서 이행 후기의 33.4%로 크게 상승
- FTA 이행 후기 조제음료 수출단가가 이행 전기 대비 67.9% 상승한 가운데, 동 기간 對캄보디아 수출가격은 35.3% 상승
  - ※ 조제음료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로 레모네이드, 오렌지이드, 콜라와 같은 상품을 포함
  - ※ 박카스는 현지화 전략을 통한 수출 확대로 캄보디아 에너지 드링크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KOTRA 프놈펜 무역관 2017.5.4).

표 20. 對아세안 조제음료의 수출 동향

구 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수출량(톤)	22,488	29,703	107,119	376.3	260.6
아세안	수출단가(원/L)	833	697	1,170	40.5	67.9
	수출량(L)	822	2,769	35,751	4247.4	1191.3
	점유율(%)	3.7	9.3	33.4	-	-
캄보디아	수출가격(원/L)	1,533	907	1,228	-19.9	35.3

주 1) 수출가격 분석대상인 조제음료의 HS코드는 220210임.  
 2) 수출단가(원/L)는 한국의 對아세안 FOB가격임.  
 3) 수출가격(원/L)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對아세안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캄보디아 수출량이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6%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2016년 기준 對아세안 수출량의 95.6%를 차지하는 캄보디아의 경우, 35.0%의 기준 관세율이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2016년 5%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 9.1%의 수출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2016년 환율과 관세율을 고려한 對캄보디아 수출가격은 리터(L)당 1,533원임.

표 21. 對아세안 조제음료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출가격		하락률	관세율		양허내용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캄보디아	1,686	1,533	-9.1	35.0	5.0	12년철폐

주: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커피조제품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58.4% 증가, 對인도네시아 수출가격 하락효과는 4.8%

- (커피조제품) FTA 이행 후기 커피조제품의 對아세안 수출량은 상대국 수요 증가와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발효 전 평년 대비 58.4% 증가
  - 커피조제품의 對세계 수출량은 이행 전기 대비 6.5% 증가한 가운데, 동 기간 對아세안 수출량은 28.0%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 ※ 對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커피산업의 경우 2010~2015년 연평균 13.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1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KOTRA 수라바야 무역관 2016.5.16.).
  - ※ 인스턴트 커피(2101111000)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발효와 함께 아세안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고, FTA 이행 후기 평균 수출량은 2,774톤으로 이행 전기 대비 164.4% 증가

표 22. 對아세안 커피조제품의 수출 동향

구분	발효 전 평년 ('02~'06) (A)	발효 후		증감률(%)		
		전기 ('07~'11) (B)	후기 ('12~'16) (C)	발효 전 대비 (C/A)	이행 전기 대비 (C/B)	
전체	수출량(톤)	35,392	43,903	46,741	32.1	6.5
아세안	수출단가(원/kg)	1,280	2,007	2,262	76.7	12.7
	수출량(톤)	14,383	17,794	22,780	58.4	28.0
	점유율(%)	40.6	40.5	48.7	-	-
인도네시아	수출가격(원/kg)	1,468	2,150	2,346	59.8	9.1
싱가포르		1,150	1,773	1,944	69.0	9.7
필리핀		1,440	2,147	4,722	227.9	119.9
베트남		1,187	1,936	2,018	70.0	4.3

주 1) 수출가격 분석대상인 커피조제품(커피 크리머)의 HS코드는 2106909010임.  
 2) 수출단가(원/kg)는 한국의 對아세안 FOB가격임.  
 3)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4) 점유율은 한국의 전체 수출량 중 對아세안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임.  
 5) 상위 4개국 수출량이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8%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2016년 기준 對아세안 수출량의 72.3%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5.0%의 기준 관세율이 2009년 철폐되며 4.8%의 수출가격 하락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
  - 2016년 환율과 관세율을 고려한 對인도네시아 수출가격은 kg당 2,315원임.

표 23. 對아세안 커피조제품의 관세율 인하효과

구분	이행 10년차(2016년) 수출가격		하락률	관세율		양허내용
	FTA 미발효	FTA 발효		기준세율	협정세율	
인도네시아	2,431	2,315	-4.8	5.0	0.0	3년철폐
싱가포르	2,151	1,992	-7.4	8.0		5년철폐
필리핀	2,731	2,483	-9.1	10.0		4년철폐
베트남	2,511	1,931	-23.1	30.0		10년철폐

주: 수출가격(원/kg)은 수출액 합계를(환율, 상대국 관세율 적용) 수출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FTA협정문.

## 수출품목 다양화와 수출선 다변화로 對아세안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지난 10년간 한·아세안 FTA 이행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농축산물 교역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

- 2016년 기준 아세안은 우리나라 3대 농축산물 수입상대국(경제권)인 동시에 3대 수출상대국(경제권)임.
  -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경합하는 품목이 적어 향후 농축산물 교역규모 확대 가능성 큼.
  - 그러나 2016년 기준 아세안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과 對아세안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각각 68.5%와 41.2%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
  - 물론, FTA 활용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의 상승 추이는 매우 고무적임.
  - 또한, 중국산 농축산물 가격 상승 및 자국 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선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양허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수급상황에 예의 주시할 필요

□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아세안시장을 교두보로 삼을 수 있음.

- FTA 이행으로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 신선 농축산물을 포함한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
  - FTA 발효 이후 단감, 딸기, 배 등 신선과일의 수출 증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신선 농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프리미엄 상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중국산 등의 저가 상품과 차별화할 필요
  - 가공식품이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 적극 활용과 수출기반을 확충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커피의 사례에서처럼 수입 원료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 내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노력 필요
  - 2016년 이후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는 만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

- 단, FTA 이행과정에서 수출대상국이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 수출선 다변화에 힘써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농축산물 소비시장 실태 파악과 소비자 수요조사를 기초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이 필요
  - 또한, 국내 수출업체에 현지 시장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함.

〈부록〉 국가별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

표 24. FTA 발효 전후 국가별 10대 수입품목 비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인도네시아	A 혼합조제 식료품	밀기울	팝넛트유박	야자, 코프라박	야자유	커피	당밀	팜유	기타과스타	타피오카
브라질	B 야자유	혼합조제 식료품	밀기울	팝넛트유박	야자, 코프라박	당밀	팜유	커피	타피오카	기타과실
미국	C 팜유	팝넛트유박	야자유	혼합조제 식료품	야자, 코프라박	당밀	밀기울	커피	혼합용담배	기타과실
호주	D 26.5	50.6	87.7	45.7	43.7	41.0	99.9	10.2	13.7	5.6
태국	A 당밀	닭고기	사탕수수당	타피오카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기타과실	쌀	혼합조제 식료품	스위트콘	파인에플
일본	B 사탕수수당	타피오카	당밀	쌀	닭고기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혼합조제 식료품	미강유	스위트콘	기타과실
중국	C 사탕수수당	닭고기	당밀	타피오카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혼합조제 식료품	자당	미강유	망고	기타과실
미국	D 94.3	100.0	56.0	51.8	99.6	80.7	29.1	58.8	100.0	17.0
베트남	A 커피	타피오카	견사	면실	조물제품	후추	기타베이커리제품	계피	코코넛	고추
인도네시아	B 커피	타피오카	견사	에틸알코올	후추	견사	혼합조제 식료품	대두유	고추	기타베이커리제품
미국	C 커피	대두유	타피오카	기타과실	후추	캔디	에틸알코올	쌀	캐슈넛	고추
호주	D 75.6	79.4	45.5	28.3	71.5	65.8	54.0	40.6	89.5	99.4
말레이시아	A 팜유	팝넛트유박	야자유	후추	코코아 웨이스트	팜핵유	글리세롤(조상의 것)	기타제조담배	기타산식물	기타베이커리제품
인도네시아	B 팜유	팝넛트유박	기타베이커리제품	팝핵유	해바라기 씨유	코코아 웨이스트	후추	기타유지 가공품	기타제조담배	코코아버터
미국	C 팜유	팝넛트유박	기타베이커리제품	자당	커피	기타유지 가공품	후추	코코아 웨이스트	초코렛	혼합조제 식료품
호주	D 72.9	49.4	71.6	40.9	12.3	47.6	24.8	82.0	34.7	7.0
필리핀	A 바나나	파인에플	야자, 코프라박	야자유	과실 혼합물	혼합용담배	비스킷	기타과실	망고	단일과실 조제품
인도네시아	B 바나나	혼합용담배	파인에플	야자, 코프라박	과실 혼합물	기타과실	당밀	야자유	비스킷	사람수수당
미국	C 바나나	파인에플	야자, 코프라박	혼합용담배	기타제조담배	과실 혼합물	기타과실	사람수수당	망고	잎담배
호주	D 99.9	89.7	56.1	81.7	76.3	83.0	11.4	5.7	34.9	53.9
싱가포르	A 방향성물질	혼합조제 식료품	향미용 조제품	코코아 분말	팜유	보조사료	기타 축산 조제품	기타유지 가공품	맥주	코코아버터
미국	B 기타코코아 조제품	혼합조제 식료품	겔린	초코렛	방향성물질	코코아 분말	기타유지 가공품	기타 축산 조제품	가죽	향미용 조제품
호주	C 기타코코아 조제품	혼합조제 식료품	방향성물질	초코렛	기타유지 가공품	코코아 분말	가죽	겔린	향미용 조제품	보조사료
일본	D 81.6	12.0	73.0	50.4	42.6	59.9	62.9	69.7	79.0	88.9
미얀마	A 비그나 파세리스콩	강남콩	사인	산조인	토란줄기	옥수수	양배추	기타조제 식료품	기타콩	기타식물성애즙
인도네시아	B 기타과실	비그나 파세리스콩	쌀	강남콩	녹두	토란줄기	참깨	산조인	사인	기타콩
미국	C 기타과실	비그나 파세리스콩	녹두	채소종자	토란줄기	사인	산조인	잎담배	쌀	캐슈넛
호주	D 37.1	81.2	98.1	20.9	81.5	57.2	79.7	4.6	2.2	6.2

주 1) A: 발효 전 펄넛(02~06) 상위 10대 품목, B: 발효 후 이행 전기(07~11) 상위 10대 품목, C: 발효 후 이행 후기(12~16) 상위 10대 품목, D: 품목(C)의 이세안 전체 수입액 대비 해당 국가 품목(C)의 수입액 비중  
 2) 발효 후 이행 후기(12~16) 기준 수출액 점유율이 1% 이하인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25. FTA 발효 전후 對국가별 상위 10대 수출품목 비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인도네시아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	자당	소원피	기타 양모, 조수모 등	라면	옥수수전분	기타식물성첨질물	펠런	기타사료용조제품
베트남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기타사료용조제품	자당	소원피	옥수수전분	기타 양모, 조수모 등	대두박	라면	가죽
태국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기타사료용조제품	라면	대두박	자당	가죽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옥수수전분	소원피
말레이시아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백상분	기타사료용 조제품	백상분	라면	인스타트면
필리핀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사료용 조제품	비스킷	가죽	인스타트면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커피조제품
싱가포르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미얀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캄보디아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아일랜드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일본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호주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미국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중국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한국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커피조제품	자당	기타 양모, 조수모 등	조제분유	과당	커피조제품	대두박	기타베이커리제품

주 1) A: 발효 전 평년('02~'06) 상위 10대 품목, B: 발효 후 이행 전('07~'11) 상위 10대 품목, C: 발효 후 이행 후('12~'16) 상위 10대 품목, D: 품목(C)의 아세안 전체 수입액 대비 해당 국가 품목(C)의 수입액 비중  
 2) 발효 후 이행 후('12~'16) 기준 수출액 점유율이 1% 이하인 라인 라오스와 브루나이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KREI 농정포커스 제147호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5. 31.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ISBN: 979-11-6149-030-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